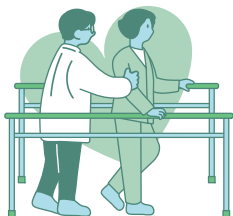


2026 심뇌 타임즈

VOL. 28
2026. 9.

중앙심뇌혈관질환센터 소식지

National Heart and
Stroke Center



중앙심뇌혈관질환센터
National Heart and Stroke Center, NHSC

The image features a soft-focus, warm-toned background. In the foreground, a large, bright yellow flower is partially visible, its petals slightly blurred. Below it, a path made of light-colored gravel or sand leads into the distance. The path is bordered by a simple wooden post-and-rail fence with a white rope. On either side of the path are fields of tall, dry grass or reeds, some of which are in focus while others are blurred. The overall atmosphere is peaceful and natural.

*National Heart
And Stroke Center*

심뇌센터 STORY

- 5 24시간 전문진료체계 운영사업 사례 공유
 - 부산권역심뇌혈관질환센터 : 24시간 전문진료체계를 넘어, 지역으로
- 8 환자교육 사례 공유
 - 경북지역심뇌혈관질환센터 : 협력으로 지키는 지역의 골든타임
- 12 환자교육 사례 공유
 - 울산권역심뇌혈관질환센터 : 예방은 가장 강력한 치료입니다
- 16 환자교육 사례 공유
 - 울산지역심뇌혈관질환센터 : 입원환자에서 지역주민까지, '교육'으로 완성하는 심뇌혈관질환 예방관리

현장스케치

- 20 2026년 제2차 권역센터 정례회의 실시
- 21 2026년 심뇌혈관질환 사례수기 공모전 안내
- 23 2026년 CV-PRIME 실무인력 워크숍 개최 안내

심 뇌 센 터 S T O R Y



권역심뇌혈관질환센터 사례 공유 ① 지역사회 협력
부산권역심뇌혈관질환센터(동아대학교병원)



24시간 전문진료체계를 넘어, 지역으로



부산권역심뇌혈관질환센터
서정화 뇌혈관센터장

“시간은 뇌 (Time is Brain)”

급성 허혈성 뇌졸중과 심근경색은 치료가 지연될수록 회복 가능성이 낮아지는 대표적인 응급질환입니다. 적절한 치료를 제때 받지 못하면 심각한 후유장애를 남기거나 생명을 잃을 수 있습니다.

동아대학교병원은 2010년 보건복지부로부터 부산·울산 권역심뇌혈관질환센터로 지정된 이후, 24시간 365일 전문진료체계를 기반으로 급성 심뇌혈관질환의 예방, 치료, 재활을 담당해 왔습니다.

그런데 부산권역심뇌혈관질환센터가 책임져야 할 권역은 어디까지일까요?

부산에서 한 시간, 그러나 환자에게는 생명의 거리

거제시는 약 23만 명이 거주하는 우리나라에서 두 번째로 큰 섬입니다. 거가대교 개통으로 부산과 약 1시간 거리가 되었지만, 급성 뇌졸중 환자에게 이 시간은 단순한 이동시간이 아닙니다.

거제지역에는 거봉백병원, 대우병원, 맑은샘병원 등 지역응급의료기관이 운영되고 있으나, 급성 뇌경색 환자에게 정맥내 혈전용해술이나 혈전제거술을 24시간 제공할 수 있는 전문인력과 치료체계는 전무하였습니다. 반면 부산에는 권역심뇌혈관질환센터를 포함한 여러 전문치료기관이 위치하고 있습니다. 이 차이는 단순한 거리가 아니라 전문치료 접근성의 차이였습니다.

부산권역심뇌혈관질환센터는 이에 대해 권역심뇌혈관질환센터 기반 응급심뇌혈관질환 네트워크 시범사업에서 거제지역을 응급심뇌혈관질환 진료 취약지역으로 선정하고, 지역 의료기관과 새로운 협력체계를 구축하고자 하였습니다.

권역심뇌혈관질환센터 기반 응급심뇌혈관질환 네트워크 시범사업

응급심뇌혈관질환 네트워크 시범사업은 권역심뇌혈관질환센터와 지역 의료기관이 하나의 진료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응급 심뇌혈관질환 환자가 적시에 전문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지역 의료기관과 권역센터 간 실시간 진료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응급환자의 신속한 의사결정 및 병원 간 전원을 지원하여, 적시에 최종치료를 제공하는 24시간 전문진료체계의 지역사회 확장을 목표로 하였습니다.

부산권역심뇌혈관질환센터는 거제지역 3개 지역응급의료기관과 협력하여 핫라인을 구축하고 응급 뇌졸중 진료 네트워크를 운영하였습니다.

사업의 핵심은 단순히 연락체계를 만드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가장 큰 변화는 지역응급의료기관과 권역심뇌혈관질환센터가 바로 연결되고 소통되기 시작했다는 점입니다.

응급실에서 뇌졸중 환자가 발생하면 거제지역 응급실의료진은 핫라인을 통해 권역센터와 즉시 연결합니다. 환자의 임상정보와 영상은 실시간으로 공유되고, 권역센터에서는 환자가 출발하기 전부터 응급실, 신경과, 신경외과, 신경중재팀이 동시에 진료 및 치료를 준비합니다.

과거에는 환자를 보내는 병원과 받는 병원이 각각 따로 움직였다면, 이제는 환자가 발생하는 순간부터 취약지 지역응급의료기관과 권역심뇌혈관질환센터가 직접 소통하는 체계로 변화하였습니다.

거제지역 의료진 대상 응급 뇌졸중 진료 교육



사업기간 동안 지역 의료진과 여러 차례 간담회 및 교육을 시행하였고, 거제소방서와도 환자 이송체계 개선을 위한 교류를 지속하였습니다. 이러한 과정은 단순한 교육을 넘어 의료기관 간 신뢰를 형성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응급심뇌혈관질환 네트워크 시범사업 시행과 결과

사업 시행 이후 지역병원 체류시간과 최종 치료병원 도착시간은 단축되는 경향을 보였습니다. 더 의미 있는 변화는 적극적인 재관류치료의 증가였습니다.

보존적 치료 비율은 79.0%에서 60.2%로 감소한 반면, 정맥내 혈전용해술 또는 혈전제거술을 시행한 환자는 21.0%에서 39.8%로 증가하였습니다. 혈전제거술 시행률도 13.3%에서 25.3%로 증가하였습니다. 이는 더 많은 환자가 골든타임 안에 전문치료를 받을 기회를 얻었음을 의미합니다.

표 1. 사업 시행 전·후 주요 치료 성과 비교

항목	사업 시행 전	사업 시행 후	변화
Door-in Door-out (DIDO)	86 min	73 min	↓ 13 min
최종 치료병원 도착까지 시간	155 min	145 min	↓ 10 min
보존적 치료	79.0%	60.2%	감소
재관류 치료 (IVT 또는 EVT)	21.0%	39.8%	1.9배 증가
혈전제거술(EVT)	13.3%	25.3%	1.9배 증가
IVT 후 EVT 시행	1.0%	9.6%	9.6배 증가

다음 단계는 테넥테플레이즈와 원격협진(Teleconsultation)

현재는 거제에서 발생한 환자를 신속하게 권역센터로 이송하여 치료를 앞당기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거제 지역 의료기관에서 테넥테플레이즈를 이용한 초기 치료를 시작하고, 부산권역심뇌혈관질환센터가 원격협진(Teleconsultation)을 통해 치료 의사결정을 지원하는 체계를 구축하고자 합니다.

테넥테플레이즈는 기존 알테플레이즈보다 투여가 간편하고 신속하여 지역응급의료기관에서 초기 치료를 시작한 후 권역센터로 이송하는 Drip-and-Ship 전략에 적합한 약제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이 체계가 정착되면 거제와 부산 사이의 약 1시간은 치료를 기다리는 시간이 아니라, 치료가 이미 시작된 시간이 될 것입니다.

이를 위해 지역 의료진 교육을 지속적으로 시행하고 있으며, 필요 시 권역센터 전문의가 원격협진을 통해 치료 의사결정을 지원할 수 있는 협력체계도 구축하고 있습니다.

24시간 전문진료체계를 넘어서, 응급진료가 필요한 지역으로

권역심뇌혈관질환센터의 역할은 병원 내 24시간 전문진료체계를 유지하는 것에 그치지 않습니다.

지역 의료기관과 함께 성장하고, 전문진료 역량을 지역사회까지 확장하여 어느 지역에서도 응급 심뇌혈관 질환 환자가 적시에 최선의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권역센터의 중요한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권역심뇌혈관질환센터는 앞으로 무엇을 더 할 수 있을까요? 그 답은 현장이, 그리고 지역이 함께 만들어 갈 것이라 기대합니다.

지역심뇌혈관질환센터 사례 공유 ② 환자교육
경북지역심뇌혈관질환센터(포항세명기독병원)



협력으로 지키는 지역의 골든타임



경북지역심뇌혈관질환센터
이정화 총괄코디네이터

협력의 배경 및 목표

포항세명기독병원은 2025년 1월 보건복지부로부터 지역심뇌혈관질환센터로 지정되었습니다. 이를 계기로 경북 동해안 지역의 심뇌혈관질환 진료와 예방을 담당하는 핵심 의료기관으로서 지역사회 건강 증진을 위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급성 심근경색증과 뇌졸중은 치료 시기가 예후를 결정하는 대표적인 중증 응급질환입니다. 특히 초기 대응과 신속한 치료 여부에 따라 생존율과 환자의 삶의 질이 크게 달라지기 때문에, 언제 어디서나 적절한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추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 병원은 이러한 목표를 바탕으로 심뇌혈관질환 진료체계를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있습니다. 표준진료지침(CP)을 개발하고 진료 데이터를 체계적으로 관리하며, 응급실 내원부터 시술과 수술, 중환자 치료, 재활까지 이어지는 연속 진료체계를 구축했습니다. 이를 통해 환자 이송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시간 지연을 줄이고, 보다 신속하고 전문적인 치료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힘쓰고 있습니다.

예방 역시 지역심뇌혈관질환센터의 중요한 역할입니다. 지역 주민들이 심뇌혈관질환의 위험요인과 조기증상을 정확히 알고 응급상황에 적절히 대처할 수 있도록 다양한 교육과 홍보활동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역 의료기관과 지방자치단체가 긴밀하게 협력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하여 지역 전체의 심뇌혈관질환 대응 역량을 높이고, 응급환자가 필요한 치료를 적시에 받을 수 있는 의료환경 조성에 힘쓰고 있습니다.

협력 과정 및 성과

중증·응급진료 협력네트워크 구축

포항세명기독병원 권역심뇌혈관질환센터와 협력하여 운영되는 「응급 심뇌혈관질환 네트워크 시범사업」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지역 내에서 심뇌혈관 응급환자가 발생했을 때 최종 치료가 가능한 의료기관으로 신속하게 연계하여 골든타임 안에 전문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우리 병원은 24시간 365일 전문진료가 가능한 당직체계를 운영하고 있으며, 평일과 야간, 휴일, 공휴일에도 안정적인 진료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100% 당직체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또한 소방과의 신속한 협조를 위해 당직 현황을 실시간으로 공유하며 응급환자 이송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력하고 있습니다.

지역심뇌혈관질환센터 지정 이후에는 네트워크 참여 의료진도 크게 확대되었습니다. 응급의학과, 심장내과, 신경과, 신경외과 의료진은 기존 18명에서 현재 29명으로 늘어났으며, 이를 바탕으로 인근 지역에서 발생하는 응급 심뇌혈관질환 환자에게 더욱 신속하고 전문적인 치료를 제공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습니다. 앞으로도 권역센터와 지역 의료기관 간 협력을 지속적으로 강화하여 지역 주민들이 언제 어디서든 적절한 치료를 받을 수 있는 응급진료체계를 유지해 나갈 계획입니다.

교육 및 인식개선 사업

지역심뇌혈관질환센터는 심뇌혈관질환의 예방과 재발 방지를 위해 지역 주민과 환자를 대상으로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심뇌혈관질환은 치료 이후에도 꾸준한 관리가 필요한 질환인 만큼, 올바른 건강정보를 제공하고 생활습관 개선을 돕는 교육이 매우 중요합니다. 이에 환자와 보호자가 질환을 정확히 이해하고 스스로 건강을 관리할 수 있도록 체계적인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심혈관센터에서는 교육 전담 간호사가 급성 심근경색증으로 입원한 환자를 대상으로 일대일 교육을 시행하고 있으며, 지역심뇌혈관질환센터 개소 이후 교육률 100%를 꾸준히 유지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심혈관집중치료실(CCU)을 포함한 심혈관질환 입원병동의 환자와 보호자까지 교육 대상을 확대하여 입원 기간 동안 질환 관리와 치료 과정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있습니다. 외래에서도 교육 전담인력이 고혈압, 당뇨병, 이상지질혈증, 비만 등 심혈관질환 위험요인을 가진 환자를 대상으로 맞춤형 상담과 교육을 제공하며 지속적인 건강관리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1 2 3 4
5 6

1. 포항세명기독병원 지역심뇌혈관질환센터
2. 심혈관질환입원환자 교육
3. 심혈관질환 외래환자 교육
4. 뇌혈관질환 입원환자 교육
5. 시민건강강좌(시민교양대학)
6. 시민건강강좌(포항MBC 시민건강클리닉)



뇌혈관센터 역시 환자 교육을 중요한 진료 과정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급성기 뇌졸중 적정성 평가에서 2013년부터 6회 연속 1등급을 유지했으며, 2024년에는 대한뇌졸중학회로부터 '재관류치료 뇌졸중센터' 인증을 획득하여 뇌졸중 치료 역량을 인정받았습니다. 이러한 진료 경험을 바탕으로 지역심뇌혈관질환센터 지정 이후 교육 전담 간호사 9명을 배치하여 급성 뇌졸중 환자와 보호자를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교육 내용은 뇌졸중의 정의와 위험성, 주요 위험요인, 재발 예방을 위한 약물 복용, 응급상황 발생 시 대처 방법 등 실생활에 필요한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2025년 9월 이후 입원환자와 보호자를 대상으로 한 평균 교육률은 73% 이상을 유지하고 있으며, 환자가 퇴원 이후에도 올바른 건강관리를 이어갈 수 있도록 지속적인 교육체계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활동은 지역 주민의 건강 수준 향상과 재발 예방에도 긍정적인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지역 의료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와 함께하는 예방교육

지역심뇌혈관질환센터는 포항시 남구보건소를 비롯한 지역 보건기관과 긴밀히 협력하며 예방 중심의 건강증진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건강교실, 시민 교양강좌, 산업체 직원 대상 건강강좌, 시민 대상 홍보 캠페인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공동으로 운영하며 심뇌혈관질환 예방의 중요성을 알리고 있습니다. 지역 의료인과 포항남부소방서 전문인력을 대상으로 실시한 교육도 지역 응급대응 역량 강화에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협력은 교육 실적으로도 확인되고 있습니다. 2025년 외부 교육과 홍보 참여 인원은 약 780명에서 약 3,000명으로 늘어나 약 2,200명이 증가했으며, 기존 대비 약 285% 증가한 성과를 보였습니다. 지역사회와 함께 추진한 예방교육이 더 많은 주민에게 전달되면서 심뇌혈관질환에 대한 관심과 인식을 높이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심뇌혈관질환은 생활습관과 만성질환 관리가 오랜 기간 축적되면서 발생하는 질환입니다. 따라서 교육의 효과가 단기간에 건강지표로 나타나기는 어렵지만, 꾸준한 예방교육과 홍보는 지역사회 건강 수준을 높이는 중요한 기반이 됩니다. 2025년 지역건강조사에서는 조기증상 인지율이 향상되는 긍정적인 변화가 확인되었으며, 앞으로도 지역 의료기관과 협력하여 건강지표의 변화를 지속적으로 분석하고 예방사업의 효과를 높여 나갈 계획입니다.

2025년 지역건강조사 결과에서도 예방교육의 효과를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포항 북구의 뇌졸중 조기증상 인지율은 전년 대비 2.2%p 상승했으며, 심근경색증 조기증상 인지율도 3.5%p 증가했습니다. 심뇌혈관질환 예방은 단기간의 성과로 평가하기 어려운 분야이지만, 지역사회와 함께 꾸준히 추진한 교육과 홍보 활동이 주민들의 질환 인식 향상에 긍정적인 영향을 준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지역 건강지표를 지속적으로 분석하며 예방사업의 효과를 높여 나갈 계획입니다.

대구·경북 권역.지역심뇌혈관질환센터 간 협력체

지역 간 협력도 한층 강화되고 있습니다. 2026년 5월에는 경북대학교병원 권역심뇌혈관질환센터, 안동병원 권역심뇌혈관질환센터, 포항세명기독병원 지역심뇌혈관질환센터가 함께 참여한 간담회를 개최했습니다. 이번 간담회에서는 지역사회 심뇌혈관질환 예방과 관리 수준을 높이기 위한 협력 방안을 공유하고, 권역센터와 지역센터가 함께 추진할 수 있는 다양한 과제를 논의했습니다.

시·군·구별 뇌졸중(중풍) 조기발생 인지도			지역사회응급의료센터(응급의료센터) 운영실태		
시군구별(%)	시군구별(%)	2023 응급의료 (%)	2024 응급의료 (%)	2025 응급의료 (%)	2026 응급의료 (%)
포항시	수원	55.5	58.7	55.7	55.7
남구	남구	87.5	95.1	49.7	49.7
북구	북구	45.5	58.7	55.7	55.7

시·군·구별 심근경색 조기발생 인지도			지역사회응급의료센터(응급의료센터) 운영실태		
시군구별(%)	시군구별(%)	2023 응급의료 (%)	2024 응급의료 (%)	2025 응급의료 (%)	2026 응급의료 (%)
포항시	수원	54.5	48.5	55.5	55.5
남구	남구	54.1	45.1	45.1	45.1
북구	북구	55.5	54.5	55.5	55.5

이번 협력은 기관 간 진료 경험을 공유하고 표준화된 진료체계를 마련하는 데 의미가 있습니다. 급성기 치료부터 예방, 퇴원 후 관리까지 지역 의료기관이 긴밀하게 협력할 수 있는 기반을 다졌으며, 앞으로도 정기적인 간담회와 정보 공유를 이어가며 지역 심뇌혈관질환 관리체계를 더욱 발전시켜 나갈 계획입니다.

협력을 통한 향후 발전 방향

포항세명기독병원 지역심뇌혈관질환센터는 심혈관질환과 뇌혈관질환 진료체계를 함께 운영하며 24시간 응급진료가 가능한 시스템을 갖추고 있습니다. 지역심뇌혈관질환센터 지정 이후에는 예방관리사업, 지역사회 교육, 등록사업, 표준진료지침 운영을 체계적으로 추진하며 치료 이후의 관리까지 이어지는 진료 기반을 마련했습니다. 앞으로도 이러한 경험을 바탕으로 재활 연계와 지역 의료기관 협력을 더욱 강화하여 지역 주민들이 안정적인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가겠습니다.

효율적인 협력체계를 위해서는 환자를 전원하는 과정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치료 결과와 개선 사항을 함께 공유하는 시스템이 필요합니다. 응급의료기관과 119, 지역 의료기관이 동일한 기준으로 환자를 평가하고 신속하게 이송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교육과 실무 협의를 이어갈 계획입니다. 또한 보건소와 지역 의료기관, 119가 함께 참여하는 정기적인 실무회의를 운영하고 주요 사례를 공유하여 지역 전체의 심뇌혈관질환 대응 역량을 높여 나가고자 합니다.

지역심뇌혈관질환센터는 앞으로도 의료기관과 지역사회가 함께 성장하는 협력체계를 구축하며, 예방부터 응급치료, 재활과 사후관리까지 이어지는 연속성 있는 심뇌혈관질환 관리체계를 발전시켜 나가겠습니다. 지역 주민이 언제 어디서든 신속하고 전문적인 치료를 받을 수 있는 의료환경을 만드는 것이 지역심뇌혈관질환센터의 목표이며, 이를 위해 다양한 기관과 협력을 지속해 나가겠습니다.



1-3. 대구·경북 권역 및 지역센터 협력 간담회



4. 포항세명기독병원 전경



권역심뇌혈관질환센터 사례 공유 ③ 환자교육
울산권역심뇌혈관질환센터(울산대학교병원)



예방은 가장 강력한 치료입니다

울산 권역심뇌혈관질환센터의 생애주기별
맞춤형 예방교육 이야기



울산권역심뇌혈관질환센터
권미희 교육간호사

**"뇌졸중 증상이 뭔지는 알겠는데,
실제로 그런 상황이 오면 제가 제대로 할 수 있을까요?"**

센터에서 교육을 담당하며 가장 자주 받는 질문입니다. 갑자기 한쪽 팔이 저리고, 말이 꼬이고, 극심한 가슴 통증이 밀려오는 그 짧은 순간, 환자 곁에 있는 사람이 어떻게 행동하느냐가 생사를 가르기에 이 물음으로 저희가 강의실을 넘어 현장으로 나가는 이유입니다.

심뇌혈관질환은 우리나라 사망 원인 상위권을 놓치지 않는 질환이지만, 역설적으로 예방과 조기 대응만으로도 결과를 바꿀 수 있는 질환이기도 합니다. 고혈압 약을 꾸준히 복용하는 것만으로 뇌졸중 위험을 최대 40%까지 줄일 수 있고, 심근경색은 발생 후 2시간 이내에 병원에 도착하면 생존율이 현격히 달라집니다. 예방교육은 단순한 정보 전달이 아니라, 위급한 순간에 누군가의 손이 되어 주는 실천 역량을 키우는 일입니다.

울산 권역심뇌혈관질환센터는 어린이·근로자·어르신, 그리고 일반 시민까지 전 생애주기를 아우르는 맞춤형 예방교육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그 현장을 소개합니다.

FAST Heroes

1. FAST Heroes – 어린이가 가족의 영웅이 됩니다.

FAST Heroes는 어린이의 눈높이에서 뇌졸중 증상과 대처법을 가르치는 국제 교육 프로그램입니다. 어린이는 조부모·부모와 가장 많은 시간을 보내는 존재이기에, 아이가 FAST를 알고 있다면 위기의 순간 망설임 없이 움직일 수 있습니다. 저희가 초등학교 현장을 직접 찾아가는 이유입니다.

교육은 수업이 아니라 놀이가 됩니다. 아이들은 애니메이션 캐릭터와 함께 악당(뇌졸중)을 물리치는 슈퍼히어로가 되어 안면마비, 팔다리 마비, 언어장애 등 주요 증상을 자연스럽게 익히고, 배운 지식은 가정으로 전해져 가족 전체의 대응 역량을 높이는 구조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알파벳	영문	확인해야 할 증상
F	Face drooping	얼굴 한쪽이 처지거나 웃을 때 비대칭이 생긴다
A	Arm weakness	한쪽 팔에 힘이 없거나 저려서 두 팔을 들면 한쪽이 처진다
S	Speech difficulty	말이 어눌해지거나 상대방의 말을 이해하지 못한다
T	Time to call 119	위 증상 중 하나라도 보이면 즉시 119에 신고한다



사진1. FAST Heroes 프로그램

2. 찾아가는 사업장 교육 - 바쁜 근로자 곁으로

산업도시 울산에는 심뇌혈관질환 위험이 급격히 높아지는 40~60대 중장년층 근로자가 많습니다. 불규칙한 근무 시간, 과중한 업무 스트레스, 잦은 회식과 음주 등 복합적 위험인자에 상시 노출되어 있지만, 바쁜 일상 탓에 건강검진 결과를 챙기지 못하고 처방받은 약의 복용을 중단하는 일도 흔합니다.

그들이 올 수 없다면, 우리가 가면 됩니다. 지난 7월 무림피앤피 사업장 방문 캠페인과 같이 산업단지·제조업체·서비스업 사업장을 교육간호사가 직접 찾아갔습니다. 점심시간 및 휴게시간을 활용한 건강 부스와 개별 상담을 운영하여 업무 흐름을 방해하지 않으면서 질 높은 교육을 제공하였습니다.

교육 내용은 실천 중심으로 구성했고 고혈압·당뇨·이상지질혈증 등 위험인자 관리부터 심근경색·뇌졸중 전조증상과 골든타임, 119 신고 요령, 금연·절주와 직장 내 스트레스 관리까지 — 위급한 순간 바로 움직일 수 있는 사람을 일터마다 키우는 것이 교육의 목표입니다.

3. 어르신 맞춤 교육 - 오래된 오해를 바로잡다.

“나이가 드니까 혈압이 좀 높은 건 자연스럽지 않나”, “약은 한번 먹기 시작하면 평생 먹어야 한다던데, 그럼 안 먹는 게 낫지”

경로당 교육에서 가장 자주 듣는 말입니다. 틀린 믿음이 오래된 습관처럼 자리 잡은 경우가 많아, 그 믿음을 바로잡는 일이 어르신 교육의 시작입니다.

65세 이상에서는 고혈압 유병률이 70%를 넘고, 뇌졸중·심근경색 발생률도 연령이 높아질수록 가파르게 증가합니다. 특히 독거 어르신은 증상이 생겨도 도움을 청할 사람이 없어 골든타임을 놓치기 쉽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노인복지관·경로당·보건소 등 어르신이 자주 모이는 지역 거점을 찾아가 반복적이고 직관적인 교육을 이어가고 있고, 지난 5월 어버이날에는 동구노인복지관에서 어르신 대상 캠페인을 열기도 하였습니다.

어르신 교육의 원칙은 세 가지입니다. 첫째, 전문용어 대신 ‘뇌가 막히거나 터지는 병’처럼 쉬운 말로 풀어냅니다. 둘째, 큰 글씨와 증상 그림 카드 등 시각 자료를 활용합니다. 셋째, 핵심 내용은 세 번 이상 반복한 뒤 “오늘 배운 것 중 기억에 남는 것을 말씀해 보실까요?”라고 여쭙보며 이해를 확인하는 방법으로 교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더불어 가정 혈압 측정, 임의 복약 중단 금지, 저염 식사, 혼자 계실 때의 119 신고 요령 등 오늘 당장 실천할 수 있는 내용을 마지막으로 전하고 교육을 마칩니다.



사진3. 어버이날 심뇌혈관질환 캠페인



사진4. 울주복지재단 중부종합사회복지관 교육



4. 일상 속으로 스며드는 지역사회 캠페인

특정 연령대를 넘어 시민 전체의 인식을 높이는 활동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울산 태화강역, 프로축구 울산 HD FC 홈경기장, 지역 축제 현장 등 유동 인구가 많은 곳에서 심뇌혈관질환 예방 캠페인을 진행하고, 매년 9월 심뇌혈관질환 예방관리 주간에는 집중 홍보를 전개하고 있습니다.



사진5. 울산 HD FC 홈경기장 심뇌혈관질환 예방 캠페인

지난 4월에는 울산광역시 공공보건의료지원단과 지역 보건의료기관 14곳이 함께한 '2026 울산 건강 한눈에! 캠페인'(태화강 국가정원 야외공연장)에 참여하였습니다. 이틀간 시민 2,000여 명이 찾은 현장에서 조기증상 OX퀴즈 룰렛으로 흥미를 끌어올리고, 리플릿을 건네며 조기증상과 대처방안, 예방관리 수칙을 알렸습니다.



사진6. 2026 울산 건강 한눈에! 캠페인

세 세대가 함께 완성하는 지역의 안전망

FAST Heroes, 사업장 교육, 어르신 교육, 그리고 시민 캠페인은 대상만 달리하는 별개의 사업이 아닙니다. 초등학교의 작은 관심이 할아버지의 생명을 구하고, 작업장 동료의 발 빠른 대처가 소중한 친구를 살리며, 어르신 스스로 자신의 건강을 지켜내는 사회 — 한 지역사회 안에서 각 세대가 제자리에서 대응 역량을 갖출 때, 비로소 지역 전체가 안전해집니다.

앞으로도 저희 울산권역심뇌혈관질환센터는 의료진과 환자가 만나는 진료실의 문턱을 넘어 시민들의 삶 속으로 깊숙이 들어가는 살아 있는 교육을 실천하겠습니다.

전국의 모든 권역·지역센터 관계자분들의 노고에 깊은 존경을 표하며, 함께 건강한 대한민국을 만들어 가기를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

지역심뇌혈관질환센터 사례 공유 ④ 환자교육
울산지역심뇌혈관질환센터(동강병원)

입원환자에서 지역주민까지, ‘교육’으로 완성하는 심뇌혈관질환 예방관리



울산지역심뇌혈관질환센터
예방관리센터
유 림 간호사

동강병원 지역심뇌혈관질환센터는 2025년 1월 지정 이후, 심뇌혈관질환 예방·관리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예방관리사업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왔습니다.

병원 내 입원환자와 보호자를 대상으로 한 교육에서 출발하여, 사업장 근로자 대상 찾아가는 교육, 그리고 유동인구가 많은 지역 행사와 다양한 협의체 기관들과 연계한 캠페인 활동으로 그 범위를 넓혀가고 있습니다.

1. 환자와 함께 만들어가는 교육

“유익한 시간이었습니다” 입원 환자 및 보호자 교육 후 진행하는 만족도 조사에서 가장 많이 접하는 한마디입니다.

심근경색증과 뇌졸중으로 입원한 환자가 검사와 치료를 받을 때마다 설명을 듣더라도 환자와 보호자가 전체 치료 과정을 한눈에 파악하기에는 어려움이 따를 때가 많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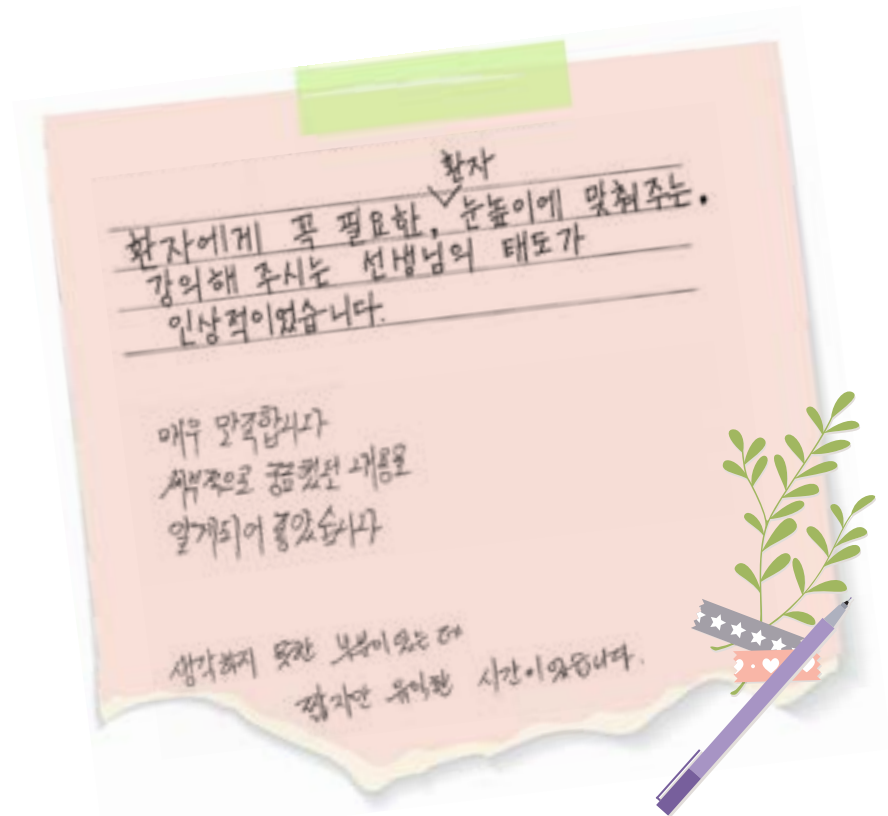
이에 표준화된 시각적 교육자료를 활용하여 증상, 진단, 치료, 퇴원 후 관리에 이르는 흐름을 순서대로 짚어주는 교육을 진행하여 환자 및 보호자가 질환의 경과와 관리 방법을 한결 쉽게 이해하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흡연·음주·식습관·신체활동 등 생활습관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질환에 대한 인식이 부족한 부분을 파악하여, 필요한 경우 금연지원센터와 같은 지지체계와 연계하거나 해당 영역에 대한 집중적인 교육을 시행하는 등 환자별 상황에 맞춘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환자 교육은 교육자가 대상자에게 일방적인 정보를 제공하기만 하는 것은 아닙니다. 환자와 보호자가 질환의 경과와 관리 방법을 이해하는 과정 속에서 단순한 정보 전달을 넘어 자신의 상황에 맞는 실질적인 궁금증을 해소하기도 하고, 질문 속에서 교육자가 환자에 대한 새로운 정보들을 파악하기도 합니다.

퇴원 후 타 병원 수술이 예정되어 있던 한 환자는 항혈전제 약물에 대한 설명을 듣던 중 약물 복용 조정 방법에 대해 질문하여 주치의에게 답변을 받아 무사히 퇴원할 수 있었습니다.

이처럼 교육 과정에서 오가는 질문과 답변은 환자가 자신의 치료 과정을 능동적으로 이해하고 준비하는 계기가 되며, 교육이 일방적인 정보 전달에 그치지 않고 환자와의 양방향 소통을 통해 완성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2. 지역사회 속으로 : 가까이 다가가는 심뇌혈관질환 예방 교육

예방관리사업은 병원 밖, 일상생활 속에서도 지역사회 심뇌혈관질환 예방과 건강증진을 위해 사업장 근로자 대상 교육 및 지역주민 대상 캠페인 활동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사업장은 정기 건강검진을 통해 고혈압, 당뇨병, 이상지질혈증 등 심뇌혈관질환 위험요인을 가진 근로자들을 매년 파악하고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있다는 이점이 있습니다. 그러나 사업장 내 보건관리자가 검진 결과에서 확인된 위험요인을 근로자 개개인에게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집체 교육을 시행하거나, 근로자들이 갖고 있는 궁금증에 모두 답하기란 쉽지 않습니다.

이에 본 센터는 보건관리자 및 안전관리자를 대상으로 예방교육 및 예방관리센터의 교육 사업 소개를 실시하고, 이를 사업장 근로자 대상의 ‘찾아가는 교육’으로 연계하였습니다.

사업장은 다양한 연령층의 근로자에게 한번에 교육을 제공할 수 있는 효율적인 환경으로, 많은 인원을 대상으로 예방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교육은 지역심뇌혈관질환센터 전문의와 간호사가 직접 사업장을 방문하여 심뇌혈관질환의 위험요인, 예방관리, 조기증상 및 대처방법, 진단과 치료 내용으로 진행합니다. 교육 후에는 질의응답을 통해 근로자들의 궁금증을 해소하고 건강관리 방향을 함께 모색합니다. 실제로 본인의 증상이 검사가 필요한 것인지, 어떤 검사를 진행해야 하는지 등 병원 방문을 고민하고 계신 근로자들이 적지 않았으며, 교육 후 개별 상담을 통해 병원 방문에 대한 심리적 장벽을 낮추고 적절한 시기에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돕는 긍정적 효과로 이어질 수 있었습니다.



사진 2. 사업장 근로자 및 지역주민 교육

센터에서는 교육뿐 아니라 심뇌혈관질환 예방 문화 확산을 위한 다양한 지역사회 캠페인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건강복지박람회 건강부스 운영을 통해 뇌졸중과 심근경색의 조기증상, 대처방법, 예방수칙 등을 리플렛을 제작하여 안내하고, 관련 정보와 교육 콘텐츠를 확인할 수 있는 경로를 소개하여 지속적인 정보 접근이 가능하도록 돕습니다.

울산공공보건의료지원단 협의체와 함께 진행한 ‘건강 한눈에’ 캠페인에서는 지역 공공보건의료기관이 협력하여 시민들에게 다양한 건강정보를 제공하였습니다. 각 기관의 전문성을 바탕으로 건강상담과 예방교육을 함께 운영함으로써 단일 기관이 수행하기 어려운 폭넓은 건강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었으며, 지역사회 협력체계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사진 3. 캠페인 활동

3. 앞으로의 추진방향

병원 내 환자 교육에서 지역사회로 이어져 온 예방관리사업의 흐름을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환자에게 전문적인 치료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원내 간호사와 직원에 대한 전문교육을 시행하고 있으며 2026년도 2월부터는 심혈관센터 전문의가 동일한 주제로 매월 4회에 걸쳐 지역 주민이라면 누구나 방문하여 들을 수 있는 교육을 진행하며 효과적인 예방관리사업 운영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동강병원 지역심뇌혈관질환센터는 앞으로도 지역주민들이 언제 어디서나 심뇌혈관질환 예방교육을 받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유관기관과의 협력 체계를 강화하여 건강한 지역사회를 만들어 나가는데 힘쓰겠습니다.

동강병원 전경



2026년도 제2차 권역센터장 정례회의 개최

중앙심뇌혈관질환센터는 지난 7월 14일(화) 「2026년도 제2차 권역센터장 정례회의」를 개최했습니다. 이번 회의에서는 ①권역심뇌혈관질환센터 재지정 평가 계획 및 운영평가지표 개편(안), ②중증·응급 심뇌혈관질환 네트워크 시범사업 모델 개선 추진(안), ③출혈성뇌졸중 사업 개편(안) 및 CV-PRIME 실무인력 워크숍 계획 등 주요 현안을 논의했습니다.

심뇌혈관질환센터 재지정 평가 계획

9월 16일(수), 17일(목) 권역심뇌혈관질환센터 지정일로부터 3년 이상 경과한 14개소를 대상으로 2주기 재지정 평가가 이루어집니다. 평가는 지정기준 및 운영평가지표에 따라 종합적으로 이루어지며, 평가보고서·진료실적·운영평가지표 산출결과 검토와 평가위원회 질의응답을 포함한 대면 평가 방식으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권역심뇌혈관질환센터 운영평가지표 개편

기존 운영평가지표는 올해 8월까지 권역심뇌혈관질환센터의 의견을 수렴해 개편안을 마련하고, 2027년부터 개편된 지표를 도입할 예정입니다. 아울러 외과계 신설 지표는 9월까지 유관학회 및 권역심뇌혈관질환센터 의견 수렴을 거쳐 개편안을 마련하고, 2027년까지 출혈성 뇌졸중 지표 산출 체계와 외과계 산출기준을 확립할 계획입니다.

중증·응급 심뇌혈관질환 네트워크 시범사업 모델 개선 추진(안)

네트워크 시범사업 개선모델의 단계적 추진 로드맵을 공개했습니다. 1단계에서는 중증·응급 심뇌혈관질환 '전원' 중심의 기관 간 네트워크를 구축·운영하고, 2단계에서는 '병원 전 단계' 심뇌혈관질환 네트워크 사업 운영을 위한 협력체계를 확립합니다. 3단계에서는 '전원' 중심 기관 간 네트워크에서 '병원 전 단계 심뇌혈관질환' 대응까지 기능을 확대할 예정입니다.

출혈성 뇌졸중 사업 개편(안) 및 CV-PRIME 워크숍

출혈성 뇌졸중 등록사업은 데이터 완전성, 데이터 입력 표준화, 현장 실무 적합성 제고를 목적으로 개편이 추진됩니다. 이와 함께 실무인력의 역량 강화와 데이터 완전성·일관성 확보를 위한 CV-PRIME 실무인력 워크숍이 10월 15일(목)~16일(금) 1박 2일로 개최될 예정입니다.

중앙심뇌혈관질환센터 안건 공유 후에는 각 권역심뇌혈관질환센터 임원진의 의견을 듣는 시간도 마련했습니다. 네트워크 사업 개편 방향에 대한 질의와 우려, 외과계 신설 지표에 대한 궁금증, 필수 인력 확보의 어려움, 권역·지역심뇌혈관질환센터 간 소통 강화 필요 등 현장의 목소리가 다양하게 오갔습니다.

함께 알아두면 좋은 소식

- 2026년도 심뇌혈관질환 사례수기 공모전 개최 (8월 10일(월) ~ 9월 18일(금))
- 중앙심뇌혈관질환센터 홈페이지의 모바일 버전이 새롭게 개발될 예정 (12월 중)
- 2026년도 제33차 전국회의 개최 예정 (11월 12일(목), 13일(금))

2026년 심뇌혈관질환 사례수기 공모전 개최 안내

중앙심뇌혈관질환센터는 심뇌혈관질환 예방을 위한 대국민 홍보를 위하여 지난해에 이어 「2026년 심뇌혈관질환 사례수기 공모전」을 개최합니다. 공모기간은 8월 10일부터 9월 18일까지 6주간이며, 일반국민 부분과 전문가 부분으로 나누어 진행합니다.

응모자격



응모자격은 일반국민 부분의 경우 권역 및 지역심뇌혈관질환센터에서 심뇌혈관질환 치료 중이거나 최종 치료 경험이 있는 국민 혹은 그 가족입니다. 전문가 부분의 경우 권역 및 지역심뇌혈관질환센터 소속 의료진 또는 심뇌혈관질환 진료 협력 네트워크 시범사업 참여 의료진 및 참여 119구급대원입니다.

공모주제



이번 공모전의 공모주제는 일반국민 부분은 ①권역 및 지역심뇌혈관질환센터에서의 치료를 통한 심뇌혈관질환 예방 및 극복사례에 대한 수기, ②심뇌혈관질환관리 의료체계에 대한 경험 및 그에 대한 칭찬/불만 사례, ③심뇌혈관질환관리 의료체계에 대한 개선 요구사항 등입니다.

전문가 부분은 ①권역 및 지역심뇌혈관질환센터 운영 사업을 통한 우수 치료 사례, ②심뇌혈관질환 진료협력 네트워크 시범사업을 통한 효과적인 치료 또는 환자이송 사례, 개선 요구사항, ③심뇌혈관질환 환자 응급처치 및 이송과정에서의 현장 개선 요구사항 등입니다.

시상금



최종 심사를 거쳐 부문별 10인씩 총 20인을 순위별로 선발할 예정입니다. 부문별 최우수상 1인 100만원, 우수상 4인 각 50만원, 장려상 5인 각 20만원이 시상금으로 지급됩니다. 특히 최우수상의 경우 제33차 권역·지역심뇌혈관질환센터 전국회의에서 직접 수상받게 됩니다. 접수는 공모전 홈페이지를 통하여 지정 양식에 분량 제한 없이 작성하여 제출하는 방식입니다.

권역 및 지역심뇌혈관질환센터 관계자들의 많은 관심을 바라며, 기관 내 환자 및 보호자에게 널리 홍보하여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2026 심뇌혈관질환 사례수기 공모전

공모기간 | 2026. 8. 10.(월) ~ 9. 18.(금) (6주간)



공모부문 및 주제

부문	일반국민	전문가
대상	· 권역 및 지역심뇌혈관질환센터에서 심뇌혈관질환 치료 중인 환자 또는 그 가족 · 권역 및 지역심뇌혈관질환센터에서 심뇌혈관질환 최종 치료 경험이 있는 국민 또는 그 가족	· 권역 및 지역심뇌혈관질환센터 소속 의료진 · 심뇌혈관질환 진료협력 네트워크 시범사업 참여 의료진 (간역네트워크 시범사업, 인적 네트워크 시범사업) · 심뇌혈관질환 진료협력 네트워크 시범사업 참여 119구급대원
주제	· 권역 및 지역심뇌혈관질환센터에서의 치료를 통한 심뇌혈관질환 예방 및 극복 사례에 대한 수기 · 심뇌혈관질환관리 의료체계에 대한 경험 및 그에 대한 칭찬/불만 사례 · 심뇌혈관질환관리 의료체계에 대한 개선 요구사항 등	· 권역 및 지역심뇌혈관질환센터 운영 사업을 통한 우수 치료 사례 · 심뇌혈관질환 진료협력 네트워크 시범사업을 통한 효과적인 치료 또는 환자이송 사례, 개선 요구사항 · 심뇌혈관질환 환자 응급처치 및 이송과정에서의 현장 개선 요구사항 등

제출방법



지정 양식에 작성 후
공모전 홈페이지 접속

<https://kccvc.spectory.net/write2026>

*제출양식: 심뇌혈관질환 사례수기 공모전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분량 제한 없음)

시상내역

구분	인원	시상내역
일반국민	최우수상	1,000,000원
	우수상	500,000원
	장려상	200,000원
전문가	최우수상	1,000,000원
	우수상	500,000원
	장려상	200,000원

*최종심사 결과, 심사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경우 시상 및 인원은 조정될 수 있음



문의처



연락처: 02-2072-3532



E-mail: 02634@snuh.org



보건복지부



중앙심뇌혈관질환센터

2026 CV-PRIME* 실무인력 워크숍 개최 안내

– 전국 CV-PRIME 실무인력 간 연결과 성장 –
함께 배우고, 함께 논의하고, 함께 연결하다



전국 권역-지역심뇌혈관질환센터는 심뇌혈관질환 통합 정보관리시스템(CV-PRIME)을 통해 심근경색증(KRAMI), 허혈성 뇌졸중(RSR), 출혈성뇌졸중(KHSR) 등록사업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CV-PRIME의 안정적인 운영과 지속적인 발전을 위해 10월 15~16일 전국 수행기관 실무인력이 함께하는 「CV-PRIME 실무인력 워크숍」이 개최됩니다.

이번 워크숍에서는 기관별 사업 운영 경험과 데이터 관리 현황을 공유하고, 데이터 입력 기준 및 등록사업 발전 방향 등 현장에서 필요한 주요 사항을 함께 논의할 예정입니다. 또한 의료 AI 기술 동향, 의료데이터 활용 및 해석, 의료기관 개인정보보호 실무 등 데이터 사업 수행 역량 강화를 위한 다양한 특강도 마련됩니다.

전국 실무인력이 한 자리에 모여 경험을 나누고 미래 방향을 함께 모색하는 뜻깊은 자리에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 **행사일시:** 2026년 10월 15일(목) ~ 16일(금)
- **행사장소:** 서울 골드리버 호텔
- **주요내용:** 데이터 입력 실무강의, 등록사업 관련 특강, 네트워킹 및 협력 논의 세션을 통해 등록사업 업무 능력 증진 및 실무인력 간 협업 가능한 네트워크 구축
- **참여대상:** 심뇌혈관질환 등록사업 데이터 입력 실무자 전원
- **참여신청:** 참여대상 기관별 별도 안내
- **주최/주관:** 중앙심뇌혈관질환센터



* CardiocerebroVascular disease – Patient Registry based Intelligence system for Management and Evaluation, 심뇌혈관질환 통합 정보관리시스템



2026 VOL. 28

심뇌타임즈
중앙심뇌혈관질환센터 소식지



중앙심뇌혈관질환센터
National Heart and Stroke Center, NHSC